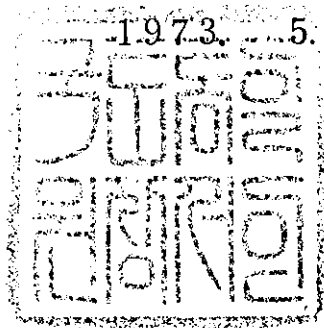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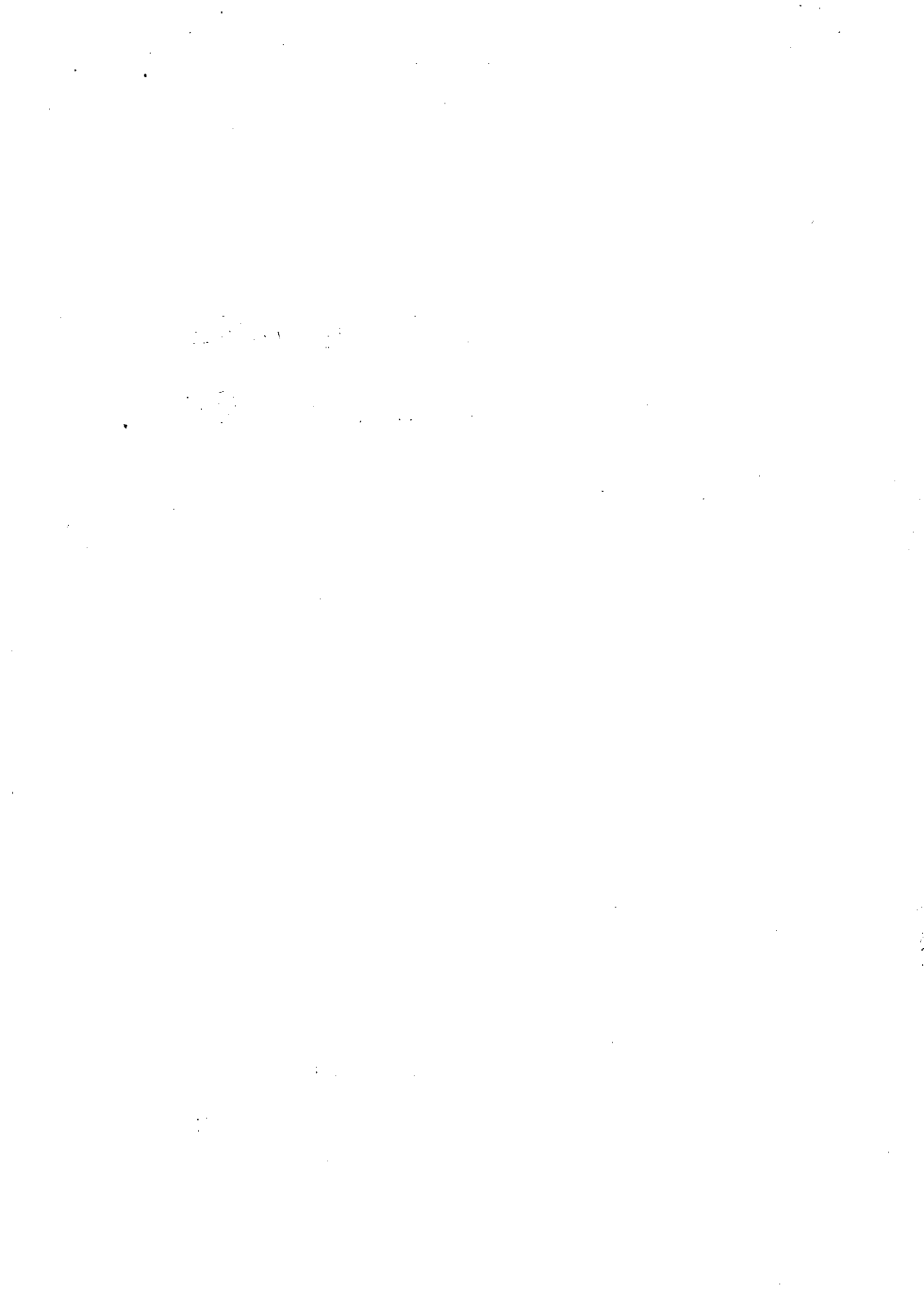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 통일원 73년도
상반기 연구 용역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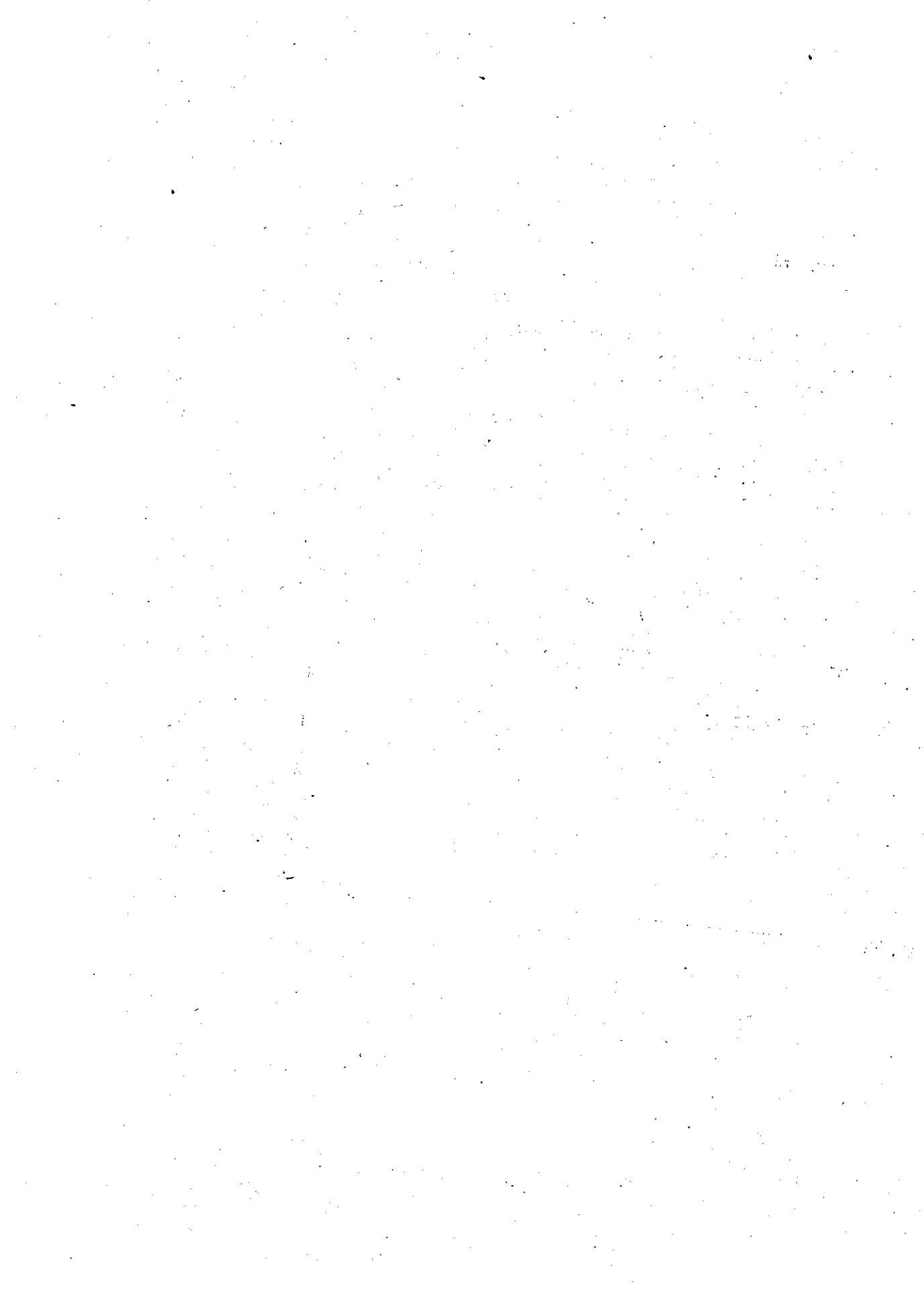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김 남 식



I. 序	3
II. 蘇聯的 对外援助政策的 基本性格	5
1. 蘇聯 援助的 政治性	5
2. 東西援助比較	6
III. 蘇聯的 对北韓政策	8
1. 基本目的	8
2. 變遷過程	10
IV. 蘇聯的 对北韓援助	21
1. 概 況	21
2. 援助的 推移	22
V. 結 論	25



I. 序

地球上에 처음으로 불세비키共産政權이 樹立된지 半世紀가 넘었다. 그동안 프롤레타리아革命의 종주국인 소련은 世界革命基地로서 自國內의 基盤을 공고히 하고 「無産階級解放」이란 슬로건 아래 그들의 勢力을 膨脹해 왔다.

특히 2次大戰後 소련은 東歐의 위성국들을 掌握하고 아시아에서도 “反帝民族解放鬭爭支援”이라는 이름아래 共産勢力들을 조장하여 世界的인 勢力圈으로 膨脹하였다.

그러나 스탈린死亡以後 특히 소련共産黨 20次大會를 契機로 共産世界에서 絶對的 우상이요 神話였던 스탈린體制가 무너지므로써. 深刻한 動요와 變化가 일기 始作했던 것이다.

中共의 登場은 理念鬭爭이라는 形式으로 共産圈內의 民族主義를 조장하여 다원화의 길을 열었다.

소련과 北韓의 關係도 이러한 共産圈內의 動向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면서 發展해 왔다. 北韓은 그 政權의 出発에 있어 徹底한 [衛星國化過程]을 밟았고 對소일변도의 關係에 있었다.

스탈린死亡以後 中, 소紛爭이 격화하자 北韓은 共産圈內의 多元化現象에 편승하여 소련의 直接的인 隸屬에서 벗어나 自主路線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軍需工業, 國防建設, 經濟復興을 위해서 소련의 援助를 期待해야 할 立場에 있으며 소련도 또한 對中共封鎖政策의 一環으로 北韓을 繼續 自己 影響圈에 保存시킬 必要가 있어 兩國 關係는 기복을 가지면서도 不可分의 利害關係를 갖고 持續돼 왔다.

以上과 같은 소련·北韓關係의 變遷과정을 단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은 소련의 北韓에 대한 援助政策의 姿貌이다. 본고에서는 解放以後 소련과 北韓과의 關係發展을 소련의 對北韓援助政策에 着案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朝鮮對外援助政策의 基本性格

1. 朝鮮援助의 政治性

朝鮮의 對外援助計劃은 大體로 經濟的 利得에 依拠하여 樹立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第3世界에 對한 對外政策의 한 手段으로 看做하고 있는 以上 그 動機는 政治的 側面이 強하다.

朝鮮援助에 對한 모든 交涉은 關係國 政府와 直接 行해지고 있기 때문에 受援國은 雙務貿易 또는 巴達貿易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政治的 影響을 받게된다.

朝鮮은 그들의 對外援助가 金的으로 利他主義에 立却한 것임을 強調하는 한편 第3世界에서의 開發이 不振한 것은 이제까지의 資本主義-帝國主義的 搾取에 基因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責任이 없음을 主張한다. 따라서 西方側 援助를 過去 植民主義的 搾取에 對한 補償의 形態로 그리고 開發途上國의 經濟를 支配하려는 新植民主義的 意圖로 看做하려 한다.

朝鮮의 援助計劃은 1957年에 設立된 對外經濟連絡國家委員會(GKES)에서 關장하고 있다. 同 委員會는 聯邦關係會議에 對해 直接的인 責任을 갖고 있으며 그 議長은 聯邦關係會議의 構成員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政治的 重要性을 考慮한 것이다.

1950年代 中期에 이르러 비로서 形式을 갖춘 援助計劃이 始作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基本計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對外經濟連絡國家委員會가 設立되기 前인 1954~56年間 朝鮮은 6個國과 援助協定을 締結하였다. 이로써 開發途上國에 對한 經濟的 侵透가 徐々히 進行되었고 터키, 아프가니스탄, 印度의 境遇와 같이 援助協定이 締結되었다.

1956年 西方側과 이집트關係가 惡化되자 朝鮮은 宣傳的 效果를 노려 아스완댐工事的 引繼를 提議하였으며 急速한 工業化를 熱望하는 社會主義勢力이 이락에서 구벤타로 政權을 잡았을 때 (1958年 7月)에도 支援을 約束하였다.

이러한 樣相은 1960年代 初에도 顯著하여 一般的으로 援助에 對하여 中立的立場을 取하고 있는 新生아프리카諸國을 西方側과의 傳統的인 유대關係에서 分離시키려는 意圖에서 朝鮮은 그들에게 接近하였던 것이다.

2. 東·西 援助比較

朝鮮이 提供하고 있는 援助는 그 大部分이 低利의 中期借款으로 西方側 援助의 約 半을 차지하고 있는 無利子借款 또는 完全한 贈與의 形態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朝鮮은 民間投資를 援助가 아니라 新植民主義的 經濟武器로 看做한다. 民間投資가 援助供與와 그 行爲에 있어 다르다고는 하나 民間資本도 亦是 担保附輸出信用의 形態로 利用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아니라 이러한 信用의 條件은 一部 朝鮮援助에 못지않게 受援國에 有利한 것이다.

朝鮮의 援助額 (政府開發援助만)을 西方國家들과 比較해 보면 1968年度 朝鮮의 援助 絶對額은 캐나다, 이태리와 거의 비슷하며 英國의 2분지1 美國의 12분지1이다.

朝鮮은 世界開發途上國中 그 반도 못되는 40個國에만 援助를 提供하였는데 半이상이 印度와 이집트에 投入되었다.

朝鮮과 西方側의 援助實施를 比較하면 양적 면에와 같이 條件的 側面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즉 西方側 援助는 朝鮮에 비하여 (利子率

償還期間, 据置期間 등을 考慮) 平均 2倍以上 有利한 条件이다.

쏘련援助는 大部分(95%)가 프로젝트援助이며 商品購入이 限定되어 있는데 西方側援助는 買入条件附援助가 半程度이며 投資事業이 指定되는 프로젝트援助는 3分之1에 不過하다.

教育設備, 教授陣의 供給, 海外留学教育, 熟練技術者 및 研究設備의 供給 등 技術援助는 西方側이 總援助의 19%, 쏘련은 15%로써 거의 같은 水準이다. 그러나 西方側은 모든 技術援助가 贈与의 形式을 取하고 있는데 반해 쏘련은 大學教育, 技術教育을 위한 奨學金을 除外하고는 모든 費用을 借款의 形態로 提供하고 있다.

Ⅲ. 北朝鮮의 對北韓政策

1. 基本目的

北朝鮮이 아시아에서 그 影響力을 增大하려고 하는 努力은 두가지 目的을 갖는 것이다. 즉 하나는 中共의 影響力擴大를 封鎖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美國의 影響力에 대신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근 4半世紀동안 北韓에 對한 北朝鮮의 政策은 對中共紛争에 있어서 北朝鮮의 態度를 그대로 反映해온 셈이다.

北朝鮮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과 北韓內의 中共派間의 勢力競爭은 韓國動亂過程에서 莫上莫下의 實力을 보였고 1960年代 初期中. 北朝鮮論爭이 激化한 以來 北朝鮮은 中共의 北韓에 對한 優越한 影響力을 破壞하려는 努力을 傾注하였다.

후르시초프時代 末期에 北韓은 北朝鮮의 平和共存政策에 反對했고 金日成의 個人崇拜人習을 후르시초프가 非難했으며 또 小國共産黨인 알바니아를 北朝鮮의 指導에 따르지 않는다고 非難. 攻擊했다는 등의 理由로 北韓은 中共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結果 北朝鮮은 北韓에 對한 經濟 및 軍事援助를 一方的으로 中斷했다.

이때 北韓은 中. 北朝鮮紛争에 捲려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傾向을 보였었다. 마침 그때는 中共의 文化革命이 進行되어 北韓에 對한 中共의 影響力이 弱화된 때 였으므로 北韓의 路線變更이 可能했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路線變更은 1966年 8月12日 「勞動新聞」에 揭載된 “우리들의 獨立을 지키자”는 글에 나타나있다.

이 論說에서는 朝鮮의 修正主義와 中共의 敎條主義를 多같이 攻擊하여 “思想的으로 누구엔가 묶여서 살아갈 수 없으며…… 他人의 構조에 맞추어 춤을 추어도 안된다”고 宣言했다.

이 路線은 1966年 10月の 北韓 党中央委員會總會에서 한층 더 發展했다. 그 會議席上에서 中·朝鮮論爭의 심화를 구실로 黨行動方針의 四大原則을 表明했다.

이것은 思想面에서의 多樣性, 政治的 獨立, 自立經濟, 自主國防 등의 네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原則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朝鮮의 軍事·經濟援助에 依存했으며 이로 因해 朝鮮은 北韓에 對해 繼續 影響력을 갖일 수 있었다.

注目되는 것은 이時機에 北韓은 平和的 統一方法에서 後退하여 軍事的 手段을 強調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点이나 (1966.1월 勞動黨 中央委總會)

1967年 3月 朝鮮은 北韓과 새로운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實質的인 武器援助를 增加시켰다. 1967~8年間에 朝鮮은 北韓에 500 臺에 達하는 제트기를 供與하고 미사일에 의한 防空體制를 大幅 增加시켰다. 이것은 朝鮮이 中共에 對抗하여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強化하는 目的을 갖는 것이었다.

1967年 朝鮮은 모스크바에서 北韓과 貿易協定을 締結하였다. 이로해서 朝鮮은 北韓의 工場, 工業團地建設에 相當한 援助를 提供 하였다.

朝鮮援助의 意圖는 北韓을 中共으로 부터 떼어내어 자기의 영향 권으로 包攝하려는 것과 同時에 韓半島에서 美國과 對決하는 事態 로까지 發展시키고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北韓의 武力的 挑発

行動을 抑制하기 위한 끈을 달아 두는 效果도 있는 것이다.

2. 變遷過程

解放以後 朝鮮과 北韓과의 關係發展을 大別하면

- ① 對소一辺倒時期 (1945. 8 ~ 61.)
- ② 關係惡化時期 (1962 ~ 64.)
- ③ 關係改善時期 (1965年 以後) 등 3期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時期別로 朝鮮의 對北韓政策의 變遷을 中心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對소一辺倒時期 (45. 8 ~ 61.)

朝鮮은 第2次大戰이 終了되기 直前 (45. 8. 8) 北韓一帶에 軍隊를 進入시켜 軍政을 實施하고 將次 北韓에 共產政權을 樹立할 計劃下에 基礎作業을 착실히 進行시켰다. 1947年 2月 21日에는 “北朝鮮人民委員會”를 設置하여 金日成을 中心으로 한 北韓內 共產化 基지를 確立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48年 9月 9日에는 北韓政權을 樹立시켰던 것이다. 同年 12月 朝鮮은 北韓을 承認하고 1949年 1月 11日 朝鮮특명전권대사 「스티포프」가 北韓에 봉임하여 北韓을 衛星國으로 하는 政治, 經濟, 軍事 등 모든 部門에서 緊密한 關係를 맺어놓았다.

1948年 12月 26日에는 朝鮮軍이 北韓으로 부터 完全 徹收하였음을 公布함으로써 朝鮮 軍政이 끝났다. 그러나 朝鮮 占領軍이 徹收한 後에도 朝鮮의 北韓에 對한 影響力은 여전히 存하였다.

겉으로는 北韓을 日本從屬으로 부터 解放시키고 北韓國民의 自主的인 國家建設을 援助하는 印象을 주려고 하면서도 實질은 占領國으로서 東歐 占領地域에 對해서 取했던 人民民主義革命方式을 實施하고

衛星國化하여 支配權을 確立한 것이다.

조선은 1949.1月 北韓駐在 조선大使「스티코프」의 봉임이래 北韓에 對한 經濟 및 軍事援助를 強化하여 北韓軍의 增強, 北韓의 南侵準備를 서두르고 마침내 6.25南侵을 強行했다.

1949年 3月 5日에는 金日成을 代表로한 使節團이 모스크바를 訪問 스탈린과 會見하고 “經濟 및 文化에 關한 協定”과 “軍事援助”에 關한 秘密協定을 (1949年 3月 17日) 締結하여 2億 1,200萬 旧루블의 借款을 받아 北韓內의 經濟建設과 軍事力의 整備에 着手했던 것이다.

아무튼 조선은 表面上 直接的인 軍事介入은 避했지만 國際政治 舞臺에서는 北韓, 中共側의 立場을 堅持하여 側面的 支援을 아끼지 않은 것은 事實이다.

조선의 아리한 巧妙한 姿勢에 對해서 北韓은 後年 不滿의 뜻을 表明하고 그로 因해 “自主獨立” 路線을 내걸게된 한 遠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조선과 北韓과의 關係는 비단 政治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對北韓經濟援助와 協定關係를 보아도 北韓의 對조선依存度를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조선의 對北韓 無償援助는 4億 4,250萬弗에 達하고 있다.

한편 조선과 北韓과의 貿易高를 보면 北韓의 對조선으로 부터의 輸入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貿易面에서 對조선依存度가 增加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조선의 對北韓經濟政策이다. 원래 조선의 社會主義諸國(코메콘 加盟國)에 對한 基本的政策은 조선經

濟를 中心한 國際分業 方式이다. 北韓은 “코메콘”에 加入하고
있지는 않으나 朝鮮으로서는 北韓에 對해서도 이 方式을 實施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北韓은 “經濟自立”을 내걸고 있고 朝鮮方式에 完全히
同調할 수 없거니와 朝.中共對立에 의한 對朝.對中共關係 變轉 등
의 理由로 因해서도 北韓의 經濟建設 特히 韓國動亂 後의 ①經濟
3 個年計劃 (1954~1956年) ②經濟 5 個年計劃 (1957~1960年)
③ 經濟 7 個年計劃 (1961~1967年, 3年延長) 등에 對한 朝鮮의 經
濟計劃年數와의 蹉跌, 朝鮮의 經濟, 技術援助 實施, 減少 乃至 停滯
를 結果的으로 가져왔고, 그것은 反面 北韓의 對朝不滿의 表明, 對
朝關係의 冷却化의 한 要因이 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朝鮮의 對北韓援助 減少에 대해 좀더 살펴본다면 朝鮮은 이미
1957年부터 始作한 北韓 5 個年計劃을 “부결없는 幻想”이라고
非難했으며, 1958年 10月을 期해 斷行된 全般的 農業의 集團化와
機械工業을 發展시키려는 努力등을 모두 非難했다. 그러므로 朝鮮
은 北韓의 5 個年計劃 그 自体에 對하여 많은 異見을 가지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條件下에서 北韓은 5 個年計劃을 敢行하였는데 5 個年計
劃의 첫해인 1957年에는 北韓에 對한 外接收入이 그들의 公式筭
表에 의하여 收入豫算의 12.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인 1958年에 이르러서는 4.2%로 急激히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59년에는 2.7%로 격감하여 1961年부터는 一切의
外接收入(無償援助)이 두절되었다.

5 個年計劃의 中盤期서 부터 豫期되었던 外國의 援助, 主로 朝鮮
의 援助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새로히 마련된 7 個年計劃에

서도 初期에 約束되었던 外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大部分이 借款形式 또는 通商의 方法에 의한 援助였다.

이러한 事情을 살펴볼 때 北韓이 援助의 制約으로 朝鮮으로부터 壓力을 받기는 이미 5個年計劃 때 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해서 金日成은 “自力更生”의 口號를 내걸게 된 것이다.

이렇듯 朝鮮의 對北韓援助가 減少되고 있던 가운데 1960年 10月 當時의 흐루시초프 首相이 北韓을 訪問하기로 決定되어 있었으나 이 決定은 아무런 理由도 없이 取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같은 朝鮮과 北韓關係는 南韓에서의 5.16 軍事革命으로 因해 맺어진 軍事條約으로 因해 強化되었다.

1961年 5月 30日 코시킨 首相이 北韓을 訪問하고 6月 6日 歸國했다.

이 訪問은 5.16 革命으로 急變된 韓半島情勢를 觀察하기 위한 것으로 믿어지며 金日成은 1961年 6月 29日~7月 15日까지 모스크바와 北京을 訪問하여 朝鮮과 北韓, 中共과 北韓間에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軍事條約)을 締結했다.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에서 締結된 “朝소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의 規定으로 미루어 보아 北韓이 朝鮮·中共 北韓間의 同盟體制의 組織을 願했으리라고도 推測되나 中·소關係가 惡化되어 있어 同盟體의 組織은 中·소가 反對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朝鮮과 北韓, 中共과 北韓間으로 하는 雙務條約으로 締結된 것 같다.

朝北韓條約은 効力이 10年이며 條約廢棄에 對해 一方이 希望하지 않으면 5年間 繼續되게 되어 있어 昨年에 延期된 것으로 믿

어지나 中. 朝關係가 더욱 惡化되고 70年代에 들어서면서 促進되고 있는 國際情勢의 緊張緩和로 強力한 것은 못되지만 萬一 韓半島에서 戰爭狀態가 發生했을 때는 朝鮮이 直角的인 介入을 할 수 있는 口實을 朝鮮이 留保하고 있다는 點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나. 關係 惡化時期(1962年~64年)

1962年 10月을 期하여 激化된 中印國境紛爭과 쿠바危機는 北韓路線이 親中共路線으로 明白히 轉換된 하나의 뚜렷한 契機라고 하겠으나 北韓이 明白히 朝鮮을 非難하고 中共을 두둔하기 始作한 것은 1962年 12月 6日 北朝 共產黨 第12次大會에 부터였다. 同大會에 參席한 李周淵 朝鮮勞動黨代表團長은 “兄弟黨들의 國際會議가 아닌 나라의 黨大會에서 一部 同志들이 中國共產黨과 兄弟的 中國人民에 對하여 同志的 態度라고 볼 수 없는 一方的인 非難을 加하는 것은 우리의 團結을 弱化시키며 國際勞動黨階級의 共同的 偉業에 큰 損失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朝鮮을 非難하였다.

그리고 1963年 1月 東獨社會統一黨 大會에서 北韓代表 李孝淳에게는 演說의 機會도 주지 않았고 朝鮮代表로 부터 甚한 攻擊을 받고 돌아오자, 1963年 11月 30日 勞動新聞 社說 “社會主義陣營의 統一을 守護하며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을 強化하자”라는 題目下에 “一部 兄弟黨들이 共產圈에서 中共을 孤立시키고 追放하려고 하고 있다. …… 兄弟黨들이 中共을 攻擊한다는 것은 美帝와 國際反動勢力이 날뛰고 있는 現情勢下에서 敵의 反中共 合唱에 加勢하는 것이다”라고 中共을 積極 擁護하며 처음으로 對朝公開非難을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決定的인 對소 反擊은 1963年 10月 28日 字 勞 勤新聞 論說이다.

“社會主義陣營을 擁護하자”라는 題目으로 發表된 이 論說은 朝鮮과 北韓關係를 잘 나타내고 있다.

同 論文에서 朝鮮이 援助를 미끼로 內政干涉을 試圖했으며 反 스탈린 運動에 同調하지 않는다고 하여 北韓共產黨 指導部의 전 부를 陰謀했다고 통박한 것이다.

同論說은 朝鮮의 對中共孤立化 政策을 辛辣하게 攻擊하고, 朝鮮의 援助制約을 糾彈하고 內政干涉의 樣相을 暴露하고 나서 “마르크스 레닌主義”와 修正主義는 決코 妥協할 수 없으며 革命路線과 社會主義路線을 兩立할 수 없다면서 中共 同調態度를 明白히 밝히고 나섰다.

北韓이 中共路線에 加担하게 된 原因을 同論文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要點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朝鮮은 經濟援助의 代價으로 北韓을 支配하려고 하였다.
- ② 北韓의 5個年計劃, 農業集團 等 各種 經濟政策을 反對하였다.
- ③ 지나치게 內政을 干涉하였다.
- ④ 個人崇拜思想의 反對를 強要하였으며 朝鮮의 意思를 一方的으로 北韓에 對해 強要하였다.
- ⑤ 黨의 指導部에 對한 顛覆까지 朝鮮은 企圖하였다.
- ⑥ 中、朝論爭에 있어서 朝鮮이 決定的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등의 理由를 들고 있다.

아무튼 北韓이 1963年 10月을 고비로 하여 朝鮮에게 攻擊을 加하고 明白히 中共路線 加担을 明白히 한 것은 무엇보다도 朝鮮의 援助가 더 以上 期待할 수 없었거니와 上記 論文에서 말했듯이

援助를 자랑하기만 하고 그것을 政治的干涉과 經濟的 壓力手段으로 利用하려는 朝鮮態度에 不滿을 품었음은 分明하다.

그리하여 北韓은 남의 實情도 모르면서 여러가지 시비를 하였다.

勿論 우리는 自身の 決定대로 獨自的으로 行動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損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対소攻擧은 經濟討論會議를 契機로 하여 다시 激化되었다.

1964年6月16日~23日 平壤에서 開催된 第2次 重工業 經濟討論會議에서는 朝鮮은 除外되었으며 主로 朝鮮을 攻擊하는 中共과 北韓의 主導下에 會議가 進行되었다.

經濟討論會議가 対소攻擧의 會議로 一貫된데 對해 不滿을 품은 朝鮮은 이 會議의 不法性을 들어 中共은 攻擊하였다.

同攻擧은 1963年8月18日字 “프라우다” 批判論文 “누구의 利益을 위함인가”에 의해 展開되었다.

同論文은 北韓을 비롯한 朝鮮의 援助를 받은 國家들에 對해서 朝鮮援助에 關해 再確認하도록 呼訴하는 한편 同會議에서 重點的으로 討論된 自力更生이 分裂主義的 排他主義的인 理論이라고 非難하였다.

이에 對해서 1964年9月7日字 勞動新聞은 “왜 平壤經濟討論會의 成果를 重傷하려는가”라는 題目의 論說을 掲載하여 反駁했다.

同論說에서 朝鮮은 國際市場 價格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設備用 不銹鋼板을 비롯한 資材를 주고 그 代身 우리한테서 數10屯의 金과 多量의 高貴한 有色金屬과 原料들을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廉한 값으로 가져갔다고 이제까지 밝힌 바 있는 朝鮮의 掠奪相을 暴露하였다. 한편 同年9月9日 프라우다는 北韓創建 16周年에

즈음하여 소련이 過去 16年 동안에 40 以上の 企業 등의 復興과 建設을 援助하고 繼續 40 萬 KW의 火力發電所와 原子爐 1基의 建設을 包含한 協調을 北韓에 提供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1963年~1964年 10月에 걸친 소·北韓間的 經濟論爭으로 소련의 援助에 대한 北韓의 不滿이 드러난 것이며 소援助를 絶對적으로 必要로 하는 北韓의 不滿은 深刻한 것이라 하겠으며, 그 不滿은 自國의 經濟發展成長을 主目的으로 한 經濟關係의 確立을 피하는 소련의 國際紛業方式에 基因한 것이라 하겠다.

다. 關係 改善時期(1965年 以後)

1965年 2月 11日~14日, 코시킨首相이 平壤을 訪問하여 金日成과 會談하는 가운데서 1961년에 締結된 北韓과의 軍事條約을 再確認하고 北韓에 對한 새로운 軍援과 一聯의 經濟援助도 提供할 것을 承諾한 事實은 北韓과 소련間的 오랜 期間의 對立에 改善의 契機가 되었다.

소련과 北韓과의 關係가 改善된 背景은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소련의 對北韓政策의 變化이며 또 하나 越南戰의 激化를 들 수 있다.

1964年 10月 14日 흐르시초프가 失却된 後 繼承한 現政權은 平和共存과 社會主義陣營의 團結이라는 基本路線은 흐르시초프政策을 그대로 踏襲했지만 個々の 具體的 政策에는 많은 變化가 보였다.

이를테면 中·소論爭에서는 強硬한 態度에는 變함이 없었지만, 反面 이데오르기 論爭과 國家間的 關係는 一旦 區別하려는데 努力했다.

따라서 이데오르기 論争에서 國家間에 敵對關係가 생기는 것만은 避하려 하였다. 그래서 社會主義陣營内部에 있어서의 國家關係를 徐々히 正常化한 것이다.

이러한 企圖은 北韓, 越盟 等 親中共諸國에 對해서 신중히 重點的으로 실행되었다. 이를테면 共產圈內의 親中共分子를 차츰 中共에서 떼어 놓고 中共의 孤立化를 圖謀하려고 했다.

于先 具體的인 形態로서 나타난 것이 코시킨의 中共, 北韓, 越盟 3 國訪問이었다.

코시킨이 北韓을 訪問하던 4-日前인 2月7日 美國이 越盟을 爆擊하는 北爆을 斷行함으로써 越南事態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때 朝鮮과 中共이 直接 介入하여 戰爭이 擴大될 推測을 자아내게 되어 金日成도 特別警戒令을 내려 事態에 對備하고 있었다.

이렇게 匪細匪의 情勢가 緊迫해지자 金日成은 새삼 朝鮮의 援助가 要求되었던 것이다. 이럴때 코시킨은 謙虛하게 北韓의 要求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朝鮮의 北韓接近을 促進한 것은 1965年 8月에 「세레핀」 書記의 北韓訪問이다.

세레핀의 平壤訪問은 北韓의 解放 20 周年 記念日에 朝鮮代表로서 參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當時 實權者로 指目되고 있던 人物이 平壤에 간 것만으로도 朝鮮이 北韓政策에 크게 注力하고 있었음을 立証하고 있다.

이와같이 朝鮮의 積極的인 對北韓 接近策이 取해지자 北韓이 緊急한 問題로 되어 있는 石油問題의 解決을 위해 1965年 3月3日 北韓石油代表가 朝鮮을 訪問하였으며 5月31日에는 새로운 軍事協助協定이 締結되었다.

同協定으로 1962年 以來 中斷되었던 朝鮮의 軍事援助는 再開되었다.

한편 8.15 解放 20周年式典에는 朝鮮黨 中央常任委員 兼 內閣副首相 세레핀과 치스차코프가 이끄는 老兵代表團이 北韓에 派遣되었다.

1966年 6月 20日 李周淵을 團長으로 한 北韓代表團이 朝鮮을 訪問하여 經濟 및 經濟協調에 關한 協定과 1967年~70年間 技術 및 經濟協定을 締結하였고, 1967年 6月 20日 金昌奉民保相이 朝鮮 國防相 마리굽스키와 會談, 北韓軍의 裝備 現代化 및 軍援을 協議하였다.

그리고 1967年 2月 13日~3月 4日 金一副首相이 朝鮮을 訪問하여 綜合的인 (1967~1970) 經濟 및 軍事援助協定을 締結하였으며 同年 5月 20日 노비코프 朝鮮副首相이 北韓을 訪問하여 經濟援助에 따른 實態를 把握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 9月 8日 모스크바 放送에 의하면 朝鮮은 北韓에

- ① 두개의 火力發電所의 建設 (60萬 KWH와 10萬 KWH)
- ② 年間 200萬屯의 精油工場의 設計, 建設協力
- ③ 年 150萬屯의 採炭場建設을 위한 機械提供
- ④ 物理 에레كترو니크스 등 4개의 科學研究所의 設備裝備의 援助를 提供하였다.

1969年 5月 14日~19日 포드고르니 最高會議 幹部會議長은 北韓을 訪問하여 雙方의 關係 強化를 다짐했다.

그러나 포드고르니의 北韓訪問은 目的은 ① 모스크바 世界共産黨大會 (1969年 6月 5日)에 美偵察機 F-121機 墜落事件에서 들어

난 雙方間의 異見 調整 및 北韓 說得工作을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0年 6月 10日 「프라우다」는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南北韓을 最終적으로 統一할 것을 目標로 내건 北韓의 6項目의 計劃을 報道함으로써 北韓의 統一方案에 對한 支持를 表明했다.

또한 同年 8.16 프라우다는 마주로프 第1副首相의 匪細亞集團 安保構想에 關한 演說을 掲載했으나 이에 對한 北韓의 公式 見解는 發表되지 않았다.

四. 朝鮮의 對北韓 援助

1. 概 況

소위 “戰后復旧 3個年計劃”(1954~56)에 의한北韓의 제반 産業建設에 있어서 朝鮮의 援助는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朝鮮은 經濟援助는 勿論 技術者들을 派遣하여 重工業 建設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후北韓의 中共편향에 따라 朝鮮의 援助는 급격히 削減되고 소위 7個年經濟計劃('61~'66)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北韓은 이 計劃遂行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하여 1965年초부터 對 朝鮮關係改善에 努力하여 1966年 6月 20日에는 朝鮮과 “技術 및 經濟協調에 관한 協定”을 締結함으로써 1967年부터 朝鮮의 經濟援助가 재개되었고 이는北韓의 7個年計劃 3年間 延長實施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가. 援 助 額

朝鮮의 對北韓 援助

單位：달라

時 期	目 的	規 模
1949.3	經濟文化 協助	5,300萬(차관)
1953.9	戰后經濟復旧	2億5,000萬(무상)
1956.7	借款償還免除	1億4,250萬
"	經濟協助	7,500萬(무상)
"	貿易增進 및 經協	4,200萬(무상)
1958.8	物資供与	7,500萬(무상)
1959.3	經濟協力	1億4,520(通商方式)
1960.11	借款償還免除	1億9,000萬
"	借款償還 延期	3,500萬

援助總額：4億4,070萬

나. 技術援助

① 1949年 3月 17日 10個年經濟文化 協定으로 쌍방간 專門 家 派遣 技術援助, 種子 및 植物標本交換

② 1957年 8月 15日 技術協定으로 興南肥料工場 擴大를 為 한 技術者 및 施設資材 援助

③ 1960年 2月 15日 第8次 科學技術 協助委員會, 1961年 11月 18日 第11次 科學技術協助委員會로 北韓에 技術文件提供 冶金電氣施設, 貨物自動車 및 漁船機關, 化學工業, 가스, 펄프제지, 工業設備, 水力發展所設計에 대한 技術資料, 其他技術文獻 提供

2. 援助의 推移

가. 動亂前 (1950.6.25日까지) :

이 期間中에는 北韓의 對外經濟關係가 一般的인 外交政策과 關聯하여 對蘇 一辺倒였다. 1949年 3月 17日 締結된 「朝. 朝 間 經濟的 및 文化的 協助에 關한 協定」에 의해 '49~'50年 사이에 처음으로 朝鮮으로 부터 5,300萬달라의 借款을 받았다. 동 借款額은 北韓第1次 2個年計劃 ('49~'50) 總豫算收入의 22%에 該當한다.

나. 戰爭期間 ('50.6.25~'53年末) :

이 期間中 北韓은 戰爭遂行을 為하여 朝鮮으로 부터 醫療器 材, 醫藥品, 糧穀, 衣類, 其他 各種 日用品等 막대한 後方支援物資를 援助받았다.

다. 3個年計劃 期間中 ('54~'56)

이 期間中 北韓은 戰后復旧에 必要한 많은 物資를 解決하기 為하여 終來의 對蘇 一辺倒에서 多각적 經濟外交를 展開하였다.

라. 1次 5個年計劃期間 ('57~'60)

5個年計劃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北韓은 總 3億 9,940萬달라 (추정)의 海外援助를 받았는 데 그중 朝鮮의 援助는 없다.

마. 7個年計劃 遂行期間 ('61~'66年末)

이 期間中 北韓은 中·朝 分爭에 있어 中共傾향과 더불어 朝鮮의 對北韓 援助가 消極化하고 朝鮮과의 經濟協力關係가 惡化되 었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① 朝鮮이 經濟援助를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收奪的 貿易關係를 強要했기 때문이다.

北韓은 '63年 10月 28日字 “勞動新聞” 社說에서 “援助에 대해 자랑만 좋아하고 그것을 政治的인 干涉과 經濟的인 壓力 手段으로 利用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人연이 없다.”고 遊說

또 '69年 9月 7日子 勞動新聞에서는 “왜 平壤經濟討論會議의 成果를 翫뜰으려 하는가?”라는 論說에서 “平壤紡織工場과 興南肥料工場의 復旧建設을 爲해 攄 援助에서 朝鮮은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비싼 價格으로 設備과 資材를 주고 그대신 우리의 수신통 金과 多量의 高貴한 有色金屬과 原料들을 國際市場價格보다 훨씬 翫값으로 가져갔다.”고 非難

② 朝鮮의 共產黨統合計劃에 朝鮮利益 위주로 되었다는 理由가 있다.

北韓은 “統合의 간판 밑에 兄弟國家들의 經濟的 自立性을 없애 고, 民族經濟의 發展을 統制하며, 다른 나라에 翫메인 기형적인 것 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이로 인해 北韓은 7個年計劃에 큰 차질을 招來하게 됐고 結局

이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66年初부터 對北關係改善에 努力 67年
부터 北朝鮮經濟援助가 재개되었다.

바. 6 個年計劃期間

北韓은 新 6 個年計劃에 充用될 外資調達을 위해 70年 9月
5日 北朝鮮과 “ 1971~75年間 經濟 및 技術協調에 關한 協定 ”을
締結하였고 이어 中共과 70年 10月 17日 “ 經濟, 技術援助協定 ”
1971年 8月 15日 “ 經濟協調에 關한 協定 ” 1971年 9月 6日
“ 무상軍事援助協定 ”을 各各 締結하였다.

1971~75年間 北朝鮮의 對北韓援助規模는 “ 지난 5年間 実績의
2.5倍증일 것. ” (71年 6月 4日 모스크바 放送) 이라고 한다. 支
援 對象의 主要工場은

雄基原油加工工場 (年産 200 萬톤 原油處理 能力) ,
雄基火力發電工場 (施設容量 10KW) , 金策제철소轉爐職場 (年産 강철
60 萬톤 生産能力) , 淸河車輛製作工場 (年産 60 噸급車輛 8千輛
生産 能力) , 北倉火力發電所 (施設容量 60 萬KW → 100 萬KW로 擴張)
平壤自動車蓄電池工場, 電動機工場, 배어링工場, 알미늄工場, 펄프제지
工場, 等으로 되어 있다.

五. 結 論

소련은 中共의 國際的 進出을 견제하고 國際共產主義 運動에서 中共의 孤立化를 기한다는 意味에서 의 對中共政策과 韓半島를 둘러싼 對美, 對日關係를 考慮하여 결국 北韓과의 關係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勿論 北韓으로서는 國家的 利害關係의 于先의 目的이라는 觀點에서 소련과의 現狀維持를 전제로 中. 소對立關係에 中立的 立場을 견지 自主를 主張할 것이나 70年代의 對南赤化事業의 戰略的 견지에서 北韓의 統一政策 및 戰略을 모두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中共과의 關係를 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1962年以後와 같이 北韓, 中共 關係가 密接해지면 질수록 소련, 北韓關係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北韓이 아무리 자주국방, 차력경쟁을 외쳐도 北韓의 經濟計劃遂行, 軍現代化計劃은 차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北韓은 60年代 초반에 對中共 一邊倒로 인한 對소關係惡化가 北韓의 안보 및 經濟發展計劃에 重大한 위협으로 파급되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사실 北韓에 대한 中共의 支援은 항상 물질적이기 보다는 理念的 이었기 때문에 군사동맹關係를 維持하고 經濟援助를 提供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성이 있으며 北韓의 共產化統一의 要求, 工業化 推進의 要求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자신의 안전보장, 經濟發展問題를 中共보다는 항상 소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상과 같은 제반 狀況으로 보아 소련의 對北韓支援은 如何한 形態로든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北韓도 對소關係의 現狀維

